

EPL보다 더 재밌는 '판소리 EPL'

〈England Premier League〉

〈European Pansori League〉

파리 '유럽판소리·민요 경연대회'

한복 입고 부채 든 파란논의 참가자들
능숙한 한국어로 춘향가·심청가 열창
'아버지' 공연팀 가야금·해금 연주도
입상자 12월 서울 공연...광주도 추진

“아마추어 경연대회라고 해서 이벤트적인 요소가 강한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참가자들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판소리 본고장에서 왔다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정도였죠.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외운 것을 보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참가자, 가족과 친구, 유럽 판소리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구요. 객석에서 거침없이 추임새를 넣는 모습은 귀명창, 프로같았습니다.”

최근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아버지'를 공연한 박운모(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씨는 자신을 초청한 K-VOX 페스티벌 주최 '유럽판소리·민요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지난 20일 파리 태양극장에서 열린 판소리 경연 현장은 열기가 가득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부채를 손에 쥔 13명의 참가자들은 거침없는 실력을 발휘했다.

이제 막 소리를 배운 초보자도 눈에 띄었지만 정작 한국 사람도 하기 어려운 판소리 대목을 척척해내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절로 탄성이 터져 나오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 경연은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에 부부가 주최한 민간행사다. 페조디씨는 지난 2001년 파리에서 열린 판소리 공연 불어 자막을 맡게 되면서 판소리와 인연을 맺었다. 한씨는 파리 7대학에서 판소리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판소리 워크숍을 진행했고, 2013년부터 국악공연과 경연이 어우러진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는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안나 옛츠씨였다. 런던 SOAS 대학 음악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그녀는 각국의 민속음악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중이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그녀는 한국 판소리 연구를 위해 지난해 한국에 머물렀다.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을 부른 그녀는 완벽한 발음과 구슬픈 소리로 탄성을 자아냈다.

“판소리는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형식의 공연입니다. 소리와 대사가 어우러지고, 작품의 스토리도 흥미로워요. 논문 준비 때문에 주로 국악인들을 만났는데 아예 판소리를 배우보려고 했죠. 직접 해 보니 더 재미있었어요.”



지난 20일 파리에서 열린 '유럽 판소리·민요 경연대회' 참가자들과 연극 '아버지' 공연팀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래경(가야금)씨와 김보나(해금)씨의 공연 모습.

심사위원 대상을 함께 수상한 벨기에 청년 바질 뫼비옹은 재즈 드러머 출신이다. 이날 '춘향가' 중 '사랑가'를 독특한 춤과 함께 들려줬다. 또 직접 장구 가락을 치며 '진도 아리랑'을 선보여 박수를 받은 재즈 그룹 일원으로 여수 엑스포를 찾기도 했다.

두 사람은 오는 12월 서울에서 국내 판소리 전공자들과 함께 무대에 설 예정이다.

연극을 전공한 슈발리에 실레씨는 '흥보가' 중 '화초장' 부분을 아나리 대목을 불어, 소리는 한국어로 들려줬다. 각국 민속 연극에 관심이 많은 그녀

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 여름엔 북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귀스타프 플로베르 중학교의 열다섯 소녀 파도티 로라 양 등 3명은 흥겨운 춤사위와 함께 '진도 아리랑'을 불러 인기를 수상했다. 학교에서 배운 한국 민요 실력을 뽐낸 이들은 앞으로 판소리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이날 경연장에는 지난해 우승자인 벨기에인 에릭 만덴돈헨씨도 참석했다. 1996년 한국에 잠시 살았던 그는 라디오에서 '심청가' 중 "아이고 아버지"하는 대목을 듣고 판소리에 빠졌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다. 그는 5년 전 한씨 부부가 진행한 판소리 워크숍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경연 후에는 '아버지' 공연팀으로 참여했던 가야금연주자 이래경씨와 해금 주자 김보나씨가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두 사람은 '춘향가' 중 '사랑가', '진도아리랑' 등을 연주, 한국 국악의 진수를 선보였고 상송 '상월리제'를 연주할 때는 관객들이 함께 따라부르며 호응을 보였다.

한유미씨는 “강습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해도 참가자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40명이 참가했고 판소리 애호가들도 많이 늘었다”며 “입상자들의 서울 공연 후 공연장만 확보되면 광주에서도 공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리=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립니다

'종교칼럼' 새로운 필진을 만나세요

마음의 길잡이가 될 '종교칼럼'이 7월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원불교·개신교·불교·천주교(금 신는 순서) 성직자들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위로가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법성 교무 김성원 목사 일담 스님 김영철 신부

- ◇김법성(광주원음방송 사장)
 - ▲원음방송 기획운영국장 ▲전북원음방송 사장
- ◇김성원(광주중흥교회 담임목사)
 - ▲광주시교단협의회 수석부회장 ▲광주성서화운동본부 본부장
- ◇일담(강진 백련사 주지)
 - ▲미국 플로리다주 보현사 주지 ▲해외포교처 '클리어 마인드' 편집장
- ◇김영철(남동 5·18기념성당 주임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졸업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회사목

光州日報社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도 표절?

신기용 평론집서 한국 문학 표절 사례 소개

신경숙 소설가가 1996년작 단편 '전설'에서 일본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 그를 한국 대표 작가로 만들어준 장편 '엄마를 부탁해' (2008년작·창비)도 다른 사람의 수필과 소재·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있어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기용 문학평론가는 지난달 25일 출간한 자신의 4번째 평론집 '출처의 윤리'(세창미디어에서 그동안 표절 시비에 휘말린 한국 문학작품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신기용은 이 책에서 신경숙이 '엄마를 부탁해'에서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고 밝힌 수필가 오길순씨의 주장과 당시 언론 보도, 신경숙의 발언 등을 소개했다.

신기용은 먼저 오길순이 2012년 교육산업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표절 의혹을 언급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오길순은 2001년 출간한 수필집 '목동은 그후 어찌 살았을까'(범우사)에 실린 수필 '사모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썼다.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가 나오기 7년 전이다.

신기용은 이어 오씨의 표절 의혹 제기가 보도된 지 약 1개월 뒤, 신경숙이 제주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엄마를 부탁해'가 "그녀가 열여섯 살이던 때부터 준비해 오던 작품"이라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제주 인터넷 신문 '제주도의 소리'에 보도됐다.

신기용은 "(신경숙이 강연에서) 오길순의 수필집 시점보다 20년이나 더 빠른 시점을 거론함으로써 표절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책기를 박았다"고 꼬집었다. 신기용은 그러나 신경숙이 강연에서 30년 전부터 작품을 준비해 왔다고 한 것은 작가가 처음 '엄마를 부탁해'의 연재를 시작할 때 소개한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신기용은 "(신경숙은) 2007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처음으로 연재할 때, '연재를 시작하며'라는 글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6년 전이다'라며 세 번씩이나 밝혔다"면서 "이는 오길순이 수필집을 출간 배후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현대판 '나무는 서서 죽는다'

좋은친구들, 스페인 알레한드로 까소나 작품 무대... 12일까지 공동예술극장

극단 좋은친구들(대표 노희설)이 오는 12일까지 공동예술극장에서 창단 작품으로 '나무는 서서 죽는다'를 무대에 올린다. 수~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4시·7시30분, 일요일 4시.

노희설, 정경아, 황민형·이지은·안윤씨 등이 출연하는 '나무는 서서 죽는다'는 스페인 현대 극작가 알레한드로 까소나의 작품이다. 좋은친구들은 19세기 말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원작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현대 사회의 직장, 꿈, 사랑, 가족 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웃음과 감성으로 각색했다.

에우헤니아는 20년 전에 가출한 손자 마우리시오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노년을 보낸다. 그의 남편 발

보아는 아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가짜로 손자의 편지를 써 보내기 시작한다. 급기야 발보아는 손자가 결혼했다는 가짜 이야기까지 만들어 편지에 담았다. 그러던 중 소식이 끊겼던 진짜 손자에게서 편지가 도착하고, 발보아는 자신이 꾸민 가짜 편지의 정체가 들끓날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한다.

좋은친구들은 '재미있는 공연' '낭만과 여운이 있는 공연' '프로페셔널 한 공연' 등 세 가지를 캐치 프레이즈로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만든 극단이다.

문의 062-373-744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도서관 정보화교실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은 오는 10일까지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배울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보화시대에 단절된 세대 간의 소통위기를 극복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실'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강의로 구성돼 있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오후 2시부터 4

시까지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김대운 한빛전문 정보화교육강사가 ▲'스마트폰의 기본기능' 주제로 스마트폰 기본사용법 익히기, 예쁘고 유용하게 꾸미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주제로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 음악듣기 ▲'나만의 스마트폰 만들기' 주제로 가고 싶은 곳 지도로 열어보기, 책과 신문보기 등 강좌를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선착순 15명으로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62-670-796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인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 동, 신, 대, 교, 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